

2022년 제3차 장애인분과 회의록

일 시	2022. 03. 16.(수) 14:00 ~ 16:20	작성	조미선
장 소	수원시흥재복지센터 4층 회의실 및 비대면 ZOOM		
참석자	총 17명(공공 1/5명, 민간 12/14명, 배석 3명, 간사 1명)		
	박미숙(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)	○ 신종범(수원교육지청 특수교육지원센터)	-
	윤성현(호매실장애인복지관 기획홍보팀장)	○ 오창엽(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)	-
	김정애(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장)	○ 유지립(광교종합사회복지관 과장)	○
	조미선(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)	○ 이영설(작은행동 한사랑 원장)	○
	강영신(윤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실장)	○ 인경임(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장)	○
	김영희(장안구보건소 정신보건팀)	- 정효영(함께걸음직업재활센터 실장)	○
	박국정(사회복지법인 브솔복지재단 실장)	- 주자영(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)	-
	박기연(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국장)	○ 홍진화(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)	○
	박혜경(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)	○ 황지영(버드내노인복지관 과장)	○
	방상희(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지원팀)	- 신다희(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)	○
배석	하경희 대표협의체 위원, 정용수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, 장애인복지과 고유석 주무관		
회의 결과	<p>1. 정책교육</p> <p>* 장애인분과 정책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목 :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제도와 정책 과제 - 강사 : 사)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총장 신직수 <p>* 교육 Contents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 일반 현황 ● 장애인 고용관련 현황 - 장애인정책 흐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정책패러다임 변화 ● 장애인정책 종합 계획/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 ●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-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제도 ● 부처별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제도 - 장애인 고용 관련 과제 <p>* 교육 세부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인 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우리나라 장애인은 직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적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음.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함에도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음. ● 특수학교 졸업 이후 취업으로의 연결이 많지 않으며, 연계가 되더라도 지원고용 		

위주가 많은 편임.

- 경기도 취업률은 전국 취업률에 비해 높은 편이며, 구인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은 편이나 장애인과 매칭이 잘 안된다고 판단됨. 장애인도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. 장애인과 일하는 경험을 많이 늘리는 것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구인과 구직자의 생각, 경험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함.

- 장애인정책 흐름

-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직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정부의 공적인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함.
- 취업경험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과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미진한 40%에 대한 대책(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적극 활용과 지원 정책 마련 등) 필요함.
-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보임.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대
- 직업재활서비스 예산을 불안정한 기금(고용촉진기금의 재정적자 문제)에서 총당하여 충분한 예산 지원이 어려움.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예산의 불안정성은 정부의 재정역할 책임 미흡에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역할 책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.
-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대표적 한계로는 직업재활서비스 체계의 개편 없이 일부 계획만 단편적으로 실행함으로써, 노동부와 복지부 간 직업재활 기능 이원화 문제 심화됨.

- 장애인정책 고용관련 지원제도 문제점

- 증가하는 기관 수 만큼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
-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에서 일반기업의 상품과 경쟁해야 하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반 환경에 대한 지원이 낮음.
- 고용노동부의 주요사업은 고용 유지 지속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훈련 프로그램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.
- 특히 장애인에게는 훈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경험 축적이 중요함.

- 장애인 고용 관련 과제

- 정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부처 간 법적 근거가 불일치하고 지원이 배제되기도 함.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이 약한 것이 문제.
- 제주도와 같이 지자체의 근로지원금, 보충급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.

* 질의응답

- 중증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, 중증의 발달장애를 말씀하시는 건지?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직업재활 활성화에 대한 방향 중 우선순위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?

: 장애인 고용 정책을 이야기할 때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이

들고, 그 중증 안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. 장애인 고용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제도를 모두 다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 중에서도 수원에서는 어느 영역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.

- 1차, 2차 단계별 평가를 진행하며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,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?
: 진로탐색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평가하기 위한 준비, 도구 개발 등을 명확히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.
- 각각의 영역에서 서비스가 중복되고 있는데, 졸업하는 시점에서 공단이나 각각의 영역으로 나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?
: 실제 기록을 하여서 교육부에 전달하고, 활용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음. 참고용 이기는 하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중요함.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, 네트워크 연계 접근이 매우 필요함.
-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적 개선점이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우선정책과제가 무엇인지?
: 일자리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,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수 있음. 일자리 참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어떻게 근로활동을 연속해서 유지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.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 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미가 필요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.
- 타 영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배치는 어떠한지? 현재 명확한 평가기준이 아닌 상담으로만 배치하거나 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적응이 어려움에도 고용 유지만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 및 보호자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.
: 임금보장 등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무엇인지. 이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. 일반기업과 연계하였을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, 개인 및 장애인 단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,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 지원체계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.

2. 차기회의 일정

* 정례회의

- 일시 : 2022. 4. 20.(목) 오후 2시
- 장소 : 수원시홍재복지타운 4층

* 4~5월 계획 관련 TF팀 활동 일정은 분과장과 상의 후 안내 예정

회의
사진

